



윤석열 대통령, 한-룩셈부르크 정상간 면담 및 참전용사간 환담



서울시, 공덕역에 청년·신혼부부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 350호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오후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의 뜻깊은 해에 룩셈부르크 총리가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룩셈부르크 측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한 전투부대 파병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쿼터(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베텔 총리가 올해 안에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을 개설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대사관 개설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베텔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명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베텔 총리는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이 의미가 크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지속해 가자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총리 면담에 앞서 베텔 총리와 함께 방한한 레옹 모아엥(Léon Moyen) 룩셈부르크 생존 한국전 참전용사와 환담했다.

대통령은 모아엥 용사가 한국전쟁 참전 중 왼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일본의 병원에 후송된 뒤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참전해 싸운 것을 언급하면서, 머나먼 타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아엥 용사의 용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

라고 했다. 모아엥 용사는 다시 오고 싶었던 한국을 늦게 찾게 됐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최근 별세한 참

전용사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몇 명이 함께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도시철도 4개 노선 지나는 '공덕역' 초역세권 '공덕 크로시티' 7월 25일 입주 시작

도시철도 4개 노선이 만나는 공덕역 초역세권(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에 입지하며 계획단계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7월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공덕 크로시티'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공덕역은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총 4개의 도시철도 역이 교차하고 있어 대중교통 및 역세권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직장 및 학업 활동에 매우 유리하여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반경 2km 이내에 한강을 비롯한 공원이 위치해 생활권에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빌트인 냉장고·에어컨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했다. 또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 편리하면서도 고품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계 5단지에서 임대주택 품질개선(고품질 마감재·빌트인가구 고급화 등) 완전한 소셜믹스(동·호수 동시추첨제 등)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품질 임대주택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단지 곳곳에는 공동세탁실,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됐다. 시는 고령자·신혼부부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열람실, 피트니스센터, 공연장(다목적홀) 등 지역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된다.

공공주택은 서울시로부터 SH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지역편의시설은 마포구가 운영·관리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와 업무협약 체결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했던 편의 및 복지 시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벼 저탄소 재배기술 선보여

아프리카 8개국 기술 보급 위한 케이-라이스벨트 사업 평가회

전라남도는 25일 나주 동강면 (주)G금강 자체시험포장에서 케이(K)-라이스벨트 '벼 종자 생산체계 향상' 사업과 관련한 전남도의 저탄소 재배 기술을 공유하는 '벼 저탄소 재배기술 현장 평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케이-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8개국의 벼 종자 생산체계 향상을 위해 품종 보급, 농업기술과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날 평가회에는 전남도, 나주시, 농협, 농촌진흥청, 들녘경영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개용수를 절감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벼 건답직파 재배 기술'과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 개발 중인 '무써레질 기계이앙' 등을 소개하고 현지 생육 상황을 평가했다.

평가회에서 선보인 벼 재배 기술은 탄소배출 감축, 생산비 절감, 균형작업

을 통한 농작업 효율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수리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았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내에 저탄소 재배 기술이 확대될 바라고, 저개발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공유해 한국의 농업기술이 세계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금강은 전남의 대표적 농기계 회사로, 자체 개발한 레이저균형기, 다기능 파종기 등 저탄소 재배를 위한 농기계를 가나와 세네갈에 지원했다.

박종배/기자



이철우 지사, "이제는 국민이 대접받는 시대 만들어야"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마련' 지시 후 신속한 후속조치
24일 예천문화체육센터 임시 거주 이재민 79명, 경북도립대 신축기숙사 이주
2인 1실 개별생활, 공무원 3교대 24시간 생활지원과 불편 해결
이철우 지사, "공직자는 무한 서비스조직, '국민대접시대' 만들어야"

경북도는 지난 24일, 예천문화체육센터 내 텐트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집중호우 이재민 52가구 79명을 경북도립대 신축 기숙사인 미래관으로 이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립대 미래관은 연면적 2,74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해 준공돼 2022년 1학기부터 1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사생실(2인 1실)과 장애우실, 체력단련실, 학습실, 세탁실 등의 공용 공간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재민들은 2인 1실로 생활하며 기본적으로 화장실, 냉난방 완비, 개인용 침대, 옷장, 책상, 초고속인터넷망이 구비돼 있다. 이외에 이불, 개인생활용품, 자가검사키트, 심리지원키트 등이 제공됐고,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위해 공용 공간에 TV를 추가 설치 완료했다. 또 예천군에서는 이재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민들의 아침식사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되며 점심, 저녁은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생 구내식당에서 제공한다. 소

요예산은 재호구호기금과 예비비로 우선 집행될 계획이다.

경북도와 예천군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3교대 11명의 인력을 상시 근무토록 함으로써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옮긴 이재민들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가 컸던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수항리, 천항리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 호텔형 거주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이철우 도지사는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 회의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개별적인 숙박이 가능한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북도립대 기숙사를 임시거주시설로 추진하게 된 배경 또한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시거주시설에 대피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동원해 총체적 지원 방

안을 강구하라는 이철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24일 오후 예천문화체육센터에서 경북도립대로 이주하는 현장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TV 설치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나서 해결했다.

경북도립대 기숙사로 이주한 천항리 마을 주민 김00 어르신은 "폭우와 산사태 위험으로 집에 못 들어가고 텐트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깨끗한 방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써 주는 도지사님과 공무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그동안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고 몇 번이나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예천에 관장은 숙박시설들은 지금 양극대화 등으로 예약이 다 차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 작년에 신축한 경북도립대 기숙사가 있어서 당장 옮겨 모셨다"면서, "이재민들이 여름 텐트 속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분들의 심정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무한서비스 조직'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국민을 대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재해는 사전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을 헤아려 '국민대접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영양 들머리보기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머질 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머리보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는 길, 조화로운 길, 조화로운 길

물: 맑고 시원한 물, 맑고 시원한 물, 맑고 시원한 물

빛: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빛,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빛,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빛

맛: 맛있게 먹는 즐거움, 맛있게 먹는 즐거움, 맛있게 먹는 즐거움

심: 여유로운 심, 여유로운 심, 여유로운 심

숲: 푸르름이 가득한 숲, 푸르름이 가득한 숲, 푸르름이 가득한 숲

강릉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축맥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재민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랑생태공원, 영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랑공룡발자국전시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랑산생태휴양림, 분재수생이색화전시관

ida, DARK SKY RESERVATION, citizens, 영랑자연휴양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집중호우 피해복구 활동 실시

호우 피해지역 봉사활동.. 피해 농업인 지원 및 위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의회 사무처 직원 30여명과 함께 지난 25일(화), 비가 오락가락하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봉화군 지역에서 피해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앞서 지난 21일 역대급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봉화군 재산면·봉성면 및 영주시 조와동·봉현면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집행부에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날은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를 직접 찾아 집중호우로 무너진 파프리카 시설하우스를 해체하고, 토사 및 흙탕물로 뒤덮힌 농경지를 정리하는 등의 복구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남영숙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의 현실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비록 우리의 조그만 도움이 농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감·장관의 무책임이 문제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후속 조치,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변화를 고등학교 시절 직접 느꼈던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두 개를 저울에 놓고 맞춰야 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잘못된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현재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을 마주하고 학부모를 상대하는 평교사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이들이 때문이 아닌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행정 시스템은 뭐 했냐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손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체 학생인권조례 중 어떤 차별금지 조항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교육부 장관의 상황인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이런 교육감과 장관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정말 죄송스럽고, 아리고 아프다."라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후 이어진 글에서 교사들이 2018년 10월 18일에 시행된 감정도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적용을 못 받는 현실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악성 민원 전화·폭언 등에 시달리면 교사들이 즉시 응대를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와 치료 및 상담 지원에 더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대구는 역사, 문화유산, 인물 등 자랑할 만한 콘텐츠가 많은 매력적인 도시"라면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대구근대역사관이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리고 대구시민정신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근대역사관은 1932년 건립된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9호) 건물을 활용해 근대 대구 역사를 전시·교육하기 위해 2011년 개관한 공립박물관으로 전체면적 1,971㎡,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상설 전시실, 기획전시실, 문화강좌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내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근대역사관 방문

전시 및 시설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양질의 역사 콘텐츠 확충 및 홍보 강화 당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5일(화) 오전 10시, 대구의 역사성과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알리기 위해 지역의 근·현대사를 수집·홍보·교육하여 도심 내 역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대구근대역사관을 찾아 전시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물관 운영본부장으로부터 전시물 및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문화복지위원들은 대구근대역사관의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국제보상운동, 2.28 민주운동 등 나라를 위해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대구의 시민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양질의 역사 콘텐츠의 확충과 홍보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대구는 역사, 문화유산, 인물 등 자랑할 만한 콘텐츠가 많은 매력적인 도시"라면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대구근대역사관이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리고 대구시민정신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근대역사관은 1932년 건립된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9호) 건물을 활용해 근대 대구 역사를 전시·교육하기 위해 2011년 개관한 공립박물관으로 전체면적 1,971㎡,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상설 전시실, 기획전시실, 문화강좌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내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개소식 참석

쪽방주민들을 위한 동행스토어 '온기창고'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수시로 필요를 채우고 정을 나누는 동행스토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지원해 나갈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7월 20일 쪽방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동행스토어 '온기창고'(후암로 57길 3-14, 1층) 개소식에 참석하여 온기창고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는 서울시와 세브일레브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서울시가 총괄·기획하고 세브일레브에서 향후 3년간 월 1천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후원받아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개소한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는 기존의 물품배분에 대한 선착순, 줄세우기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놓고, 쪽방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날 열린 행사에는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찬 위원, 김경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최유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최경호 세브일레브 대표, 이재훈 온누리복지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날 개소식 후에 강석주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쪽방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폭염 대비 등을 점검했다.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쪽방주민 등을 비롯한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비롯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동행식당을 직접 방문해 이용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온기창고가 기존의 선착순과 줄세우기 통한 물품배분 방법을 개선하여 배부에서 소외되는 쪽방주민들이 없고, 개인에 필요에 따라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쪽방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실현했으면 한다"고 밝히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마켓도 앞으로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와 같은 동일한 용어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온기창고가 쪽방촌 주민들의 필요를 수시로 채우고 정을 나누는 동행스토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면-사상 BRT 구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15시 서면-사상 BRT 구간 내 교통 불편사항 점검과 개선을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현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 북구1), 김재운 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을 비롯해 부산시 버스운영과장, 교통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대중교통 이용 환경과 일반차량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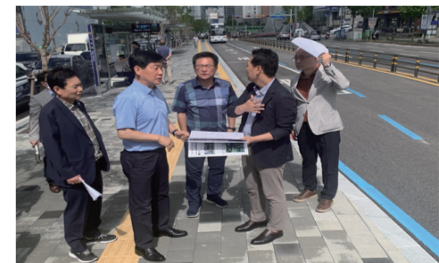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개통한 서면-사상 BRT는 가야대로 서면 교차로에서 주례 교차로까지 5.4km 구간으로 정류장 22개소, 횡단보도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착할 때마다 뒤따르던 통근버스나 관광버스가 대기하거나 일반 차로로 빠져서 추월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내 추월차로'가 15개소 설치되어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추월차로가 설치된 구간의 일반차로 교통흐름과 시내버스 이용 환경 및 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병원 등 근린시설의

입·출차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상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차로 정체구간 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BRT는 대중교통을 대표하는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부산의 도시 구조상 주요 간선로라고 해도 도로 자체가 좁아서 이 중 몇 개 차로로 BRT 차로로 전용하면 나머지 차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로 인한 교통정체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일반차로 확대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전남도의회,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 현장 연구활동 펼쳐

국토안전관리원 고흥분소 방문, 극한 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청취 등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는 25일 전라남도 해상교량산업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관리실 고흥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선진화된 특수교량 유지관리 현황과 계획관리, 재난 대응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전라남도가 해상교량의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안전관리원 고흥분소는 해상 특수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팔영대교와 거금대교, 소록대교 등 여자만과 득랑만 일대의 특수교량들

에 대한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로 운영 중이다.

임지락 대표의원은 "특수교 전문관리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극한의 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등을 청취하고 해상교량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전라남도의 해상교량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는 임지락(대표, 화순1), 이동현(보성2), 김문수(신안1), 윤명희(장흥2),

차영수(강진), 전경선(목포5), 이철(완도1), 이현창(구례), 박문옥(목포3), 박형대(장흥1)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건설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진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석경 |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 경계부: 내선 (112) |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 사회부: 내선 (113) | 부동선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킵빌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구, 안심하고 걸으세요! 보행약자 중심의 베리어프리 거리 조성

점자블록 설치, 보도 턱과 경사 낮춤, 노후 보도블록 교체 등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구가 약자와의 동행 보복을 넓힌다. 구는 이동약자의 보행이 많은 곳 일대를 베리어프리 시범 거리로 조성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베리어프리: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통행량이 많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여의동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변에는 도로가 노후되고 보도 턱이 높아 유모차나 휠체어로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울퉁불퉁한 보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안내해 주는 점자블록도 없었다.

이에 구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영등포로 84길 24-5),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사당대로 22) 주변 일대를 베리어프리 거리로 조성했다.

베리어프리 거리는 도로 턱 낮춤, 단차 제거, 경사 최소화, 점자블록 설치, 노후 보도 교체 등을 통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구는 이동권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과 어르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의 '턱' 낮춤과 점자블록'을 정비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실버카 이용 어르신들이 턱 높기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도 턱과 횡단보도 경사를 낮춘 것이다. 아울러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역시 통행 방향과 일치시켰다.

이외에도 점자블록 위에 놓인 적치물, 자전거, 가판대 등을 정비하고 점자블록과 가로수 보호틀, 분전함 간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를 위해 이설공사도 진행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유모차를 탄 영유아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베리어프리 시범 거리를 조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편의를 위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성동구 서울숲아이꿈누리터, 개소 1주년 맞아 특화된 돌봄시설로 새로운 도약

성동구 유일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안정적 돌봄과 다양한 분야 활동 제공

서울 성동구의 방과 후 초등돌봄센터인 서울숲아이꿈누리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선생님과 아이들이 자축행사를 열었다.

서울숲아이꿈누리터는 성동구 유일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지난해 7월 개소 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발달시키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문화예술, 체육, 과학,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제공하며,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탐구하고 지역사회 후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유익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에서 센터로 오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개최한 자축행사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1주년 행사 포스터 공모전,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인 플로깅백 만들기 및 줄김, 감사선물 만들기(하바리움 볼펜), 감사카드 쓰기를 진행했고, 지난 1년간 센터에서 활동한 추억을 주제로 한 퀴즈대회,

춤과 노래, 자작시 등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행사의 메인이벤트는 포틀럭 파티로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준비해준 다양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숲아이꿈누리터 한미영 센터장은 "지난 1년 동안 서울숲아이꿈누리터를 후원해주신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성동구 초등돌봄의 중심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서울숲아이꿈누리터가 알차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센터장님을 비롯한 교사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 또한 이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학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꿈누리터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다는 칭찬을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아이들에게 더욱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서울 중구의 일상을 바꾼 10가지 정책을 칭찬합니다

산후조리비용·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등 깊이 체감

서울 중구 주민들이 가장 깊이 체감한 정책은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출산 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달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칭찬하고 싶은 중구의 10대 정책' 온라인 투표 결과를 집계해 순위를 공개했다. 주민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공감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조사로 지난 1년 중구가 펼친 대표 사업 20개가 후보로 올랐다. 총 7,068명의 주민이 참여해 1인당 10개의 정책을 골라 투표했다.

주민들이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정책은 4,376표를 얻은 '아이키우기 좋은 중구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출산 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이다. 저출생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추진한 구의 대책이 주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정책은 '24시간 민원 서류 수수료 0원 중구 무인민원발급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29대가 제공하는 민원 서류 112종의 수수료는 모두 무료다. 편의 확대에 대

한 주민의 높은 관심이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3위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율이 43.7%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중구는 △요리, 호신술, 재무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1인 가구 전용공간 '놀다가' 개소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및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지원으로 1인 가구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에는 1인가구 온라인 카페 "THE 싱글즈" 회원이 700명을 돌파해 이를 기념하는 '정동 문화해설 탐방'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의료 공백을 메꿔주는 '중립보건지소 신설 및 공공공간 휴일 진료 의원 지정'은 4위,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 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은 5위, '친환경 모기유충구제 찾아가는 방역 소독'은 7위에 올랐다. 모기 방역의 경우 유충 시기인 2~4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소규모 주택에 직접 방문해 유충구제 작업을 진행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9위에는 중구민의 30년 오랜 소원,

'남산고도제한 완화'가 올랐다. 지난 6월 29일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 발표에 따라 남산자락 일대는 고도 제한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남고 위험해진 주택가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대로변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 지역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께서 뽑

아주신 중구의 10대 정책엔 일상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해주는 생활 밀착형 사업부터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대형 정책까지 골고루 포함돼 있었다"면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향후 구정 운영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 순위 | 정책명 | 득표수 |
|----|---|------|
| 1 | 아기 키우기 좋은 중구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4376 |
| 2 | 24시간 민원서류 수수료 0원 중구 무인민원발급기 | 4243 |
| 3 |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소용공간 놀다가-1인가구지원사업 | 4063 |
| 4 | 중립보건지소 신설과 공공공간휴일 진료의원 지정 (3개소) | 4053 |
| 5 | 다 함께 주차난 해결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 3951 |
| 6 |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전거보험 신설-생활안전보험 지원 확대 | 3867 |
| 7 | 친환경 모기유충구제 찾아가는 방역 소독 | 3641 |
| 8 | 이웃간 생활 분쟁 갈등 조정 갈등소통방 | 3597 |
| 9 | 30년 숙원사업 해결 기시적 성과 남산고도제한 완화 | 3574 |
| 10 | 주민 불편사항 중구청장과 직접 소통 소통문자본 | 3567 |

금천은 지금 '예술로 휴가' 떠난다

금천문화재단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금천구 곳곳에서 뮤지컬, 음악회, 전시 등을 동시에 선보이는 '금천아트바캉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아트바캉스'는 금천에서 예술과 함께 즐기는 휴가라는 의미를 담았다. 금천구가 계절마다 진행하는 '금천사계절축제' 중 여름 축제 중 하나다. 장거리 휴가 대신 일상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주민을 위해 취향에 따라 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금나래아트홀에서는 ▲ 실내악 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음악회'(7.27.) ▲ 가족뮤지컬 '블루홀 속으로'(7.29.)가 펼쳐진다. 공연료는 각각 2만 원이다.

금나래갤러리에서는 전시 '상상의 나라'(7.26.~8.26.)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상과 모험을 주제로 제작된 설치미술 작품을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감상할 수 있다. 모든 벽면에 거울 필름을 설치한 공간에서 관객 스스로 생각한 이미지를 그려보는 체험 프로

그램(참가비 3천 원)도 준비했다.

금천구청 지하 1층 선크광장에서는 ▲ 대형 스크린을 배경으로 영상과 공중 행위예술을 결합한 '그리는대로'(7.26.) ▲ 하늘을 도깨비불로 수놓는 공중 공연 '도깨비날다'(7.27.)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디즈니 영화를 만나는 '여름밤의 시네마'(7.28.)를 진행한다. 또한 친환경 플라마켓(7.29.~30.)을 열어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을 판매한다.

금천구청 앞 '금나래 물처럼 쉼터'에서는 '비눗방울 버블쇼'(7.26.~30.)를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여름만큼은 금천구에서 조금 특별한 휴가를 떠나보는 것을 제안한다"라며, "뮤지컬, 음악회, 전시부터 야외공연 한여름 밤의 영화 관람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취향에 따라 즐겨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gun #육지자연의섬 #뽕뽕리다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g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물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g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g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한 달간 도민 2,250명 태우고 달린 경기도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

경기도, 민선8기 2년 차 맞아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이동민원실 운영



경기도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한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가 22일 수원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다.

'파란31 맞손카페'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초심을 다지고 현장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찾아가는 민원실이다.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가 각각 경기 북부,

남부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각종 민원과 '도지사에 바란다' 등을 접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난 한 달간 맞손카페에는 총 2,250명의 도민이 방문했으며 도지사에게 바란다. 1,265건과 국민신문고 민원 50건 등이 접수돼 도민들의 경기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한 달 동안 맞손카페 운영을 위해 힘쓴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은 그동안 도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기회상자'라는 이름의 민원함에 넣어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원함에 담긴 민원을 무작위로 뽑아 읽었다. 민원함에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그림을 그리는 제 친구들을 위한 딱 좋은 정책입니다. 더 많은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도록 적극 추진해 주세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고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자 및 노약자가 이동하기 편하게 경기도 시내 저상버스를 확대해주세요' 등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서 소통하는 정책을 실천한 것이 뜻깊었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민원을 접수할 때)인터넷을 쓰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게실 테니 우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파란31 맞손카페에 접수된 민원을 검토해 민선 8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민경록(49) 화서2동 주민자치회장이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지난 25일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정기회의를 열고, 신임 협의회장으로 민경록 화서2동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지난 4년간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역임한 김윤재 전임 협의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민경록 신임회장 역시 김윤재 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윤재 이임회장(인계동 주민자치회장은)은 2019년 4월부터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중 주민자치회 시범동 회장으로서는 멘티가 되어 팔달구 8개동의 주민자

치회 전환을 적극 지원했으며, 주민자치 선진지 벤치마킹, 역량강화 교육 등 팔달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았다.

민경록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팔달구 주민자치회를 잘 끌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전임 회장님이 잘 닦아놓으신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수원시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하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선도하는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를 만들어 가는데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민선 8기 1주년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3번째 시정 브리핑 개최

재정경제국장 "희망도시 성남의 미래 50년 증추가 되는 양질의 고용 창출 도모할 것"

민선 8기 성남시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 훈련 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문별 사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에 발맞춰 청년층이 4차산업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민간 기업 '미래산업 교육 훈련 및 민간 기업 연계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가천대와 팸리스협회가 협력한 '팸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22년 30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이 중 90%가 팸리스 기업에 취업했으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사업'은 청소년 200여 명에게 바이오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20여 명은 신약 개발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공을 살리며 기업 현장의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전공살리기 사업, ▲청년 희망 인턴, ▲청년 드림슈트 무료 대여 사업 등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70여 개 부서 구성으로 채용관, 멘토링특강, 홍보관, 부대행사관, 체험관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시립동물병원'이 수도권 권역 내 최초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내에 의료인력 5명 규모로 9월 개소 예정이다. 반려동물 건강진단과 동물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비용 문제로 동물병원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진료비 일부도 지원한다.

10월에는 시 승격 50주년 행사와 연계해 반(려)짝(공)반짝 가를 축제라는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팻테크 산업 홍보장과 동물보호 헌

사 사진전 등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 문화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센터 개소,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운영,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제1호 백년기름특화거리, ▲제2호 청계산 음식문화특화거리, ▲제3호 백년커피문화특화거리와 같은 성남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간다.

준공한 지 42년 된 성남법조단지 원도심 신홍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6월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분당구 구미동 법무부 부지와 토지 교환을 위해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마을 세무사 무료 운영 등 각종 납세 편의 시책을 시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촉된 경기도 인력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12월 조례를 개정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세 50%를 감면해 79억 원을 환급했다. 올해는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급감,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희망도시 성남의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희망도시 성남의 미래 50년의 증추가 되는 양질의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이성윤/기자

화성시 서부보건소, 풍수해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화성시 서부보건소가 풍수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풍수해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관감염증 등)과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파상풍·렙토스피라증·안과 질환 등을 말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고,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과 익힌 음식 섭취는 물론, 설사·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

다. 또한,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야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폭우·홍수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식중독 등 집단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식품매개 질환 예방 홍보자료 배포,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실시, 주기적인 친환경 방역 실시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고양문화재단, '2023 아침음악나들이' 세 번째 무대 '하림'

"포용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전하는 위로"



고양문화재단은 오는 7월 27일 오전 11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23 아침음악나들이'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가수 하림의 무대를 선보인다. 고양어울림누리의 대표적인 오전 콘서트 시리즈 '아침음악나들이'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목요일 아침 관객들을 만나오고 있다.

이번 아침음악나들이 세 번째 프로그램은 다재다능한 싱어송라이터 '하림'의 무대로 채워진다. 장르를 넘나드는 대체 불가능한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하림'은 7월 여름의 문턱에서 무더위를 버릴 수 있는 활기와 비타민이 되어줄 그만의 음악 세계로 관객들을 인도할 예정이다.

하림은 악기장인이라는 수식어가 애기해 주듯 전 세계의 다양한 악기들을 자유롭게 다루며 자신의 음악에 그만의 색채를 입혀왔다. 특히 포용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의 대표곡인 "출국", "난치병", "위로" 등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곡들은 물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듀엣 무대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고양어울림누리의 대표 기획 프로그램인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는 매년 다양한 장르의 정상급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아침을 선사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존노 & 고영열', 5월에는 '스윗소로우'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이어질 네 번째 공연은 록의 전설 김중서(9월 21일)의 무대가 마지막 5 번째 공연은 콘서트 황제 김장훈(11월 30일)의 무대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3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 공연은 전석 3만 원으로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2개 공연 이상 동시 구매 시 20%~2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 건지산의 조선시대 봉수터에서 거화도구 출토

국내 최초로 봉수터 발굴 현장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 '화철' 발견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위치한 건지산 봉수터에서 외적의 침입을 알리거나 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된 유물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발견된 구조물과 유물은 ▲봉수터를 감싼 방호 시설 ▲불을 피워 연기를 내는 거화시설(연조) 5기 ▲봉수로 오는 신호를 관망할 수 있게 마련한 망덕 시설 ▲거화도구로 사용된 화철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 가운데 거화도구 중 하나인 화철은 봉수마다 갖추고 있던 80여종의 봉수집

물 중 하나로 학계에서는 출토된 유물들에 대해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화철은 부식물과 마찰시켜 불을 피우기 위한 철제품으로 봉수터에서 거화도구가 발견된 것은 국내 최초, 방호시설 내에서 연조 5기가 확인된 사례는 경기도에서 4번째다.

유물이 출토된 건지산 봉수터는 원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멸실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용인특례시는 건지산 일원에 수 차례 현지조사를 진행해 정상부 남서쪽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맹리 산 43번지 일원 능선에서 봉수터 흔적을 찾았다. 이를 통해 폐봉 후 126년만에 봉수터의 원래 위치를 확인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현재 비지정문화재인 건지산 봉수터의 원형과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시가 지난 4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했다.

봉수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급한 소식을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도성인 한양에 전했던 군사·통신 역할을 했던 시설이다.

건지산 봉수는 조선시대 초부터 운

영된 봉수 노선 중 제2로 직봉의 42 번째 내지봉수다.

북쪽으로는 용인 석성산 봉수를 거쳐 성남 천림산과 서울 목면산 봉수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안성 망이산 봉수로 신호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시작으로 지정된 석성산 봉수터와 건지산 봉수터가 확인된 용인특례시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교통과 통신 체계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분석된다"며 "건지산 봉수터가 국가 사적으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공공보건에서 감염병 대응까지...시민 일상 책임진다...시흥시, 보건정책 추진 계획 발표

시흥시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도시' 조성을 목표로 보건정책 강화를 나섰다.

방호실 보건소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강화와 감염병 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건강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핵심 추진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 기반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건강도시 시흥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시는 먼저 건강 격차, 저출산·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년은 2025년 매화, 2027년 거모지구에 행복건강센터를 확충해 현장 밀착형 건강 정책을 추진하고, 권역별 지역 사회 중심 재활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적응을 지원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다가치마을 공간 조성, 시흥형 산후조리비 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극복을 위해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시흥시는 향후 코로나19보다 거대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도 확립하고 있다. 민·관 의료대응협의체와 공조를 강화하고, 상

향별 훈련과 교육을 통해 대응 요원 역량을 강화한다. 또, 감염병 위기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19개 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방역단과는 사계절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대상별, 시기별로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링 전담 감시 요원을 지정해 감염병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인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인프라가 절실한 만큼, 전문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시흥시는 '건강도시 시흥'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08년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가입했고, 이듬해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며, 모든 정책에 건강도시 취지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24개 부서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도시 대표 사업인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숨쉬는 놀이터' 확충,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중재 프로그램' 지역별 확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 활성화 등 건강도시 위상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지원 협약체결

시,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하나센터와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는 7월 25일 시청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 및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심리적으로 위기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 나경세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 간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심리상담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필

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내 심리상담서비스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종합심리검사, 전문심리상담 등 심리회복지원과 정신건강 문제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하나센터는 지역 내 심리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 이탈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탈북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 출범...신규위원 50명 위촉

최대호 안양시장 "민관협치는 첫 시장 임기부터 이어온 행정 핵심가치"



민관협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시정 협력 강화를 위한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안양시는 24일 오후 5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관협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민관협치위원 50명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비롯한 안양시 실·국·소장 등 당연직 위원 7명,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발한 민간위원 40명과 시의원 3명 등 위촉직 위원 43명이 참석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협치성장·포용사회·균형발전·녹색도시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시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 조사·연구 및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공약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 등을 할 예정이다.

각 분과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은 실·국·소장 위원들과 조율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날 이해충돌방지 청렴실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향후 민관협치 토론회나 교육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25일에는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선출과 하반기 토론회 주제 선정, 2024년도 주요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관협치는 저의 첫 시장 임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온 행정의 핵심 가치이자 상징"이라며 "민관협치위원회가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가 누적해 온 협치의 성과를 위에서 굵직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5월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확대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지난 6월에 민관협치위원회 신규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이달 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위원을 선정했다.

신우용/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전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신안서 4년만에 대면 개최



28일까지 한중일 최강전 후 국제청소년바둑대축제 등 잇따라

전라남도는 제9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25일 신안 자은도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4년만에 대면 개최로, 오는 28일까지 강진, 영암, 신안에서 국내외 프로기사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강진군, 영암군, 신안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남이 배출한 김인, 조훈현, 이세돌로 이어지는 한국바둑국수(國手)의 명성을 잇고, 전 세계에 바둑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프로기사와 청소년, 바둑 동호인 1천여 명이 참가한다.

세계프로 최강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16명의 선수가 출전해 최강자를 가린다. 한국은 직전우승자(디펜딩 챔피언) 신진서 9단과 한국순위(랭킹) 2위 박정환 9단, 최근 춘란배에서 생애 첫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변상일 9단 등 8명이 출전

한다.

중국은 8월 신진서와 응씨배 결승에서 맞붙는 세커 9단과 국제대회에 강한 판필위 9단, 2015년 글로벌스배우승자인 황원승 9단 등 3명이 참가한다.

일본은 명인·십단 타이틀 보유자 시바노 도라마루 9단과 이다 아쓰시 9단, 사다 아쓰시 7단 등 3명이 참가하고 대만은 자국 1위 쉬야오홍 9단과 린수양 9단이 출전한다.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바둑을 빛낸 국수(國手)를 대거 배출한 바둑의 본고장이고, 조훈현·이세돌 바둑기념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바둑대회를 적극 유치·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바둑 교류 활성화와 바둑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프로 최강전이 끝난 후 29~30일에는 18세 이하가 출전하는 국제 청소년 바둑대축제와 전국 동호인 바둑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전남 강진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청소년 바둑대축제에는 국내 선수 150명과 중국, 일본, 태국, 대만, 홍콩에서 15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인근 영암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는 350명의 전국 바둑인이 모여 한여름 바둑축제가 펼쳐진다.

김범상/기자



나주시, "장마철 농작물 관리 이렇게 하세요" 벼·콩·노지채소·과수 등 농작물 생육 관리 안내

전라남도 나주시가 장마철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이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 생육 관리와 빠른 복구를 농가에 당부했다.

25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한 달간 1098.7mm의 많은 비가 지역에 내렸다.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 부족한 일조량,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돼 병해충이 발생해 농작물 생육, 과실품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나주시는 장마 이후 침·관수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발생 억제, 생육 피해 방지를 위한 농가 실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벼'는 흙 양분을 씻어내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 갈라대기로 뿌리의 활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도열병·흰잎마름병·혹명나방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콩'은 신속히 물을 빼낸 후 방제하고 피해가 심한 경우 보식 및 팔·녹두·조 등 대체 작물 재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대체 작물 파종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5일이 적당하다.

'감자'의 경우도 역병·무름병 등 발생 예방을 위해 신속한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 동시에 유실된 피복 비닐과 토양을 정비하고 토양이 마른 후 수확해 감자 파배를 억제해야 한다.

생육이 불량한 '노지채소'는 0.2%

액(비료40g, 물20L)을 살포하고 이 병주 및 상처난 잎은 다음 열매를 위해 제거한다. 고추와 수박은 무름병·탄저병 전용 약제 살포가 중요하다.

'시설재배' 농가는 병든 식물체를 조기 제거하고 생육이 부진한 작물은 요소 0.2%액제 또는 4종복비 엽면을 시비해야 한다.

장마 이후 다가올 폭염에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환기창을 개방하고 찢어지거나 파손된 비닐, 골조 등을 수리해 양질의 재배환경을 조성한다.

끝으로 '과수'는 과한 습기로 인해 과피열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약제를 살포하고 과원 내 통풍을 위해 체초 및 가지 유인 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과실 비대에 필요한 광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지 유인, 도장지 밀도조정 등 수체 및 시비(N-K-황산加里) 관리에 힘써야 한다.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 장기화로 농작물 병해충이 확산되고 있어 농작물 사후관리와 복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장마 이후 농작물 생육관리를 위한 현장 중심의 농가 지도에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 선정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모두누리'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발공을 위한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공모에 선정된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모두누리''는 상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돌봄인력을 통한 개인별 상황 맞춤형 돌봄서비스(인지교육, 안전, 일상생활 지원 등)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하여 3개의 치매안심마을(노암동, 왕정동, 금동)에 거주하는 재가 치

매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의료·건강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치매관리사업을 돌봄영역까지 확대하여 포괄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체계를 살피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며, "치매 환자들이 본인의 생활터에서 안심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전복 이용 동충하초 및 이의 배양 방법 특허 등록

전처리한 전복에 동충하초 균포의 포자 현탁액 접종 배양·생육 성공

완도군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와 씨엔지유기농 영농조합법인과 공동 연구로 '전복을 이용한 동충하초 및 이의 배양 방법'에 성공하여 이에 대한 특허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다.

동충하초는 흔히 곤충에서만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를 통해 전처리한 전복에 동충하초 균주의 포자 현탁액을 접종하여 배양 및 생육에 성공했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르기닌을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 보양식 중 으뜸으로 꼽히고 다양한 식품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동충하초는 코디세핀을 비롯한 여러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항당뇨, 대사질환 개선,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약리 활성이 보고되어 있다.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버섯 재배 농가와 완도군버섯연구회를 중심으로 기

술 이전을 통해 전복에서 재배한 동충하초의 약리적인 기능성을 더 향상시켜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기능성이 강화된 버섯 산업 시장 활성화와 군 대표 수산물인 전복과 버섯의 소비 촉진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능성 버섯의 지역 적응 시험재배를 통해 우리 군 버섯 산업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수산의 기능적 융복합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허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버섯 공모사업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양영율/기자

함평군, 침수 현장 대형 양수기 투입 효과 '톡톡'

이상의 군수 지시로 장마철 대비 대형양수기 구비...전시관 피해 최소화



전남 함평군의 유비무환의 준비성이 재해현장에서 빛을 내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폭우가 쏟아져 함평엑스포공원 전시관이 침수된 현장에서 함평군이 사전 구입·비치하고 있던 이동형 대형 양수기가 침수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4일 새벽부터 내린 190여 mm의 집중호우로 인해 함평엑스포공원 다목적물관, 친환경농업관 등 전시관이 일부 침수되자 군은 곧바로 이동

형 대형양수기를 현장에 투입했다.

분당 11t의 양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 대형 양수기는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이상의 함평 군수의 긴급 지시로 함평군이 한 달 여전 구입해 시험 가동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날 오전 9시경 함평엑스포공원 침수현장에 투입된 대형 양수기는 약 1시간30분 동안 약 900여t의 우수를 인근 대하 소하천으로 배수하며, 전시관 침수피해를 막았다.

또한, 관광정책실 직원 30여 명은

이날 새벽 6시30분부터 전시관 3개소 내에 농업용 엔진 양수기 3대를 동원해 배수작업을 하고 빗물을 밖으로 밀어내며 식물들을 깨끗이 씻는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정제원 관광정책실장은 "침수된 전시관에 대형 양수기를 초기에 투입해 물 빠르게 대처했다"며 "전시관 다육이, 선인장 병충해 예방 등 전시관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순천시,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자원봉사 활동 추진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통합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 미용, 정리수납 등 분야별 재능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9개의 재능나눔봉사단과 함께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재난대응 안전교육 수료 후, 재능봉사단과 함께 별량면 창산마을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정원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청소년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전북도, 정책포럼 열어 새만금 신항 발전 방안 모색



새만금 신항 조기 활성화 및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전북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 특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3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2선석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와 중

역할, 우리나라 탄소중립 항만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이희용 교수는 ▲항만물류 환경변화와 정책동향, ▲새만금 신항이 글로벌 콜드체인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콜드체인 밸류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원 실장은 친환경·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탄소중립 항만 정책에 부합하는 새만금 신항 운영 전략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원승환 교수(군산대학교)가 좌장을 맡았고 김중경(사)한국포장학회 회장, 장성연 바이오코엔(주) 부사장, 박근식 중앙대학교 교수, 양원석(사)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이사, 이균형 전북CBS 보도기획국장, 장유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팀장, 최재홍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항만중심의 스마트 물류체계 및 고부가가치형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 필요성, 새만금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과 중국 및 동남아와의

교역 활성화에 대한 환황해안 거점항만으로 새만금 신항 특화 발전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 항만정책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 유통 기능 향만으로 새만금 신항의 여건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2024년에 고시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 새만금 신항의 특화 발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새만금 신항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새만금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포럼에서 논의한 공공중도 매립 공론화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별과 함께 숨을 쉬자' 꿀벌공기호흡테라피 이색 시연회 열려

벌통 속의 공기를 흡입하여 호흡기 질환 치료

지리산 꿀벌을 이용한 호흡기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꿀벌공기호흡테라피' 시연회가 열려 호흡기질환자 의 관심이 가졌다.

지난 21일 지리산 천은사 아래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참새미골 농업체험마을에서 지리산 양봉농가 농업회사인 '허니비데코' (대표 설중수, 46세) 주관으로 가진 이번 행사에는 구례군의회 김수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양봉농가 구례군웰니스관광전문가의 의료관계자 마을이장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설중수 대표의 꿀벌 공기 호흡에 이용하는 장치와 방법 등 설명에 이어 에어컬러터(공기흡입기계), 에어부스(이동식 통나무집) 공기캔 등 체험 행사로 이어졌다.

꿀벌공기호흡은 벌들이 생활하는 벌통속의 공기를 벌통밖에 장착된 흡입기계와 호스를 이용하여 약 10분에서 15분간 입으로 호흡하는 방식이다.

또 에어부스는 편백나무로 제작된 이동식 통나무집에 벌통과 부스를 호스로 연결 벌통 속의 공기를 부스 안으로 들여보내 사람이 부스 안에 들어가 호흡하는 장치이다.

꿀벌 공기캔은 고산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캔처럼 휴대용으로 제작됐다.

김성현/기자

진도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문화예술 접목 지역 성장 동력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지역소멸 위기 대응

진도군이 전남도에서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진경(珍景) 프로젝트' 사업은 도비 180억원을 포함,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회동관광지 일원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군은 회동관광지에 있는 노후시설인 흥주하우스 부지에 진도군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과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를 접목한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청년 문화예술

가와 기술가들이 모이는 청년 웰컴센터로 리모델링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될 흥주헌(가칭)에는 진도 문화예술의 정수와 첨단 미디어아트를 융복합한 공연장과 미디어테크를 활용해 신비의 바닷길 위에 펼쳐지는 신비의 하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진도의 비교우위 자원인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준공된 지 25년이 지난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 청년들이 미래기술과 다기술로 일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캠프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가계해변 일대에는 청년창업을 위한 가계비치스토어 공간을 설치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과 동시에 관외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관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진도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장흥 물축제' 예정대로 7월 29일 개막 '가닥'

24일 장흥군, 축제추진위 긴급 회의 후 개최 결정

제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예정대로 7월 29일에 개막한다.

정남진장흥물축제추진위원회는 24일 물축제의 개최 여부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장흥군과 정남진장흥물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많은 비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물축제를 예정대로 치를 지고심에 빠졌다.

장흥군과 축제추진위는 물축제의 개최, 취소, 축소 등 여러가지 방향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축제 개최가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축제를 강행할 경우 비난 여론, 취소할 경우 예산 손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축제추진위원들은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올해 축제 수익금을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기부하자고 뜻을 모았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매년 40~50만 명의 관광객과 300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이끌어 내는 장흥군 대표 축제다.

장흥군은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최근 국내 분위기를 감안해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주재용 물축제 추진위원장은 "최고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예정대로 축제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안전하게 축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화순군, 지역농산물 이용 요리 교육 교육생 모집

6개 과정 화순향토음식 교육, 과정당 20명 모집

화순군은 오는 27일부터 2023 화순향토음식 전문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과정은 6개 과정으로 만든 양념장 반, 허브 디저트 반, 제과제빵(베이킹) 반, 음식 조각(푸드카빙) 반, 화순장류 반, 가양주 제조 반 등이다. 교육은 과정당 5회씩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하며, 마지막 5회차는 작품전시회(10월~11월 예정)로 직접 만든 요리를 전시한다.

교육내용은 만들어 놓으면 실생활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양념장류, 허브차와 함께 먹기 좋은 디저트류,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한 과일 후식(디저트)과 홈 베이킹류, 과일을 예쁘게 조각해 장식한 담기(플레이팅)와 조각(카빙), 보리쌀과 찹쌀을 이용한 집장류, 물과 곡식, 누룩을 이용해 집에서 담근 다양한 가양주 만드는 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심 형성과 향토 음식이 널리 보급되기를 기대해 보며 앞으로도 제철 농산물 소비 촉진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화순향토음식교육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2023.07.27(목) ~ 정원모집일까지
대상/인원: 과정당 20명 (화순군민)
교육장소: 농촌문화교육관 조리실 (농주면 학포로 2225)
모집과정: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기간/일수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정액 |
|----------|----------------|-------------|-----------------------|-----|
| 1 양념장류반 | 8.28~9.1(5회) | 10:00~12:00 | 오동초소스, 육회소스 등 | 5만원 |
| 2 제과제빵반 | 8.28~9.1(5회) | 14:00~16:00 | 오동초, 목이버섯소스 등 | 5만원 |
| 3 베이킹반 | 8.30~9.2(5회) | 10:00~12:00 | 오동초, 목이버섯, 목이버섯소스 등 | 5만원 |
| 4 제과제빵반 | 9.5~9.26(5회) | 10:00~12:00 | 오동초, 목이버섯, 닭고기, 닭고기 등 | 5만원 |
| 5 화순장류반 | 9.11~9.14(5회) | 14:00~16:00 | 오동초, 목이버섯, 닭고기 등 | 5만원 |
| 6 가양주제조반 | 10.4~10.13(5회) | 10:00~12:00 | 오동초, 목이버섯, 닭고기 등 | 5만원 |

신청/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 061-379-5432~4, 5456
화순향토음식교육사업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강진군, '콩' 농작물 재해보험, 8월 18일까지 가입 당부



강진군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서둘러 가입해 줄 것을 25일,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요소를 해소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70개 농작물에 대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슈퍼 엘리오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입은 파종 지연 농가 보호 등을 위해 콩 품목 가입 기간이 4주 연장되어 8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액은 총

67억 3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37억 4천만 원, 도비는 9억 원, 군비는 20억 9천만 원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를(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보조하고 있고, 농업인 부담은 10%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부담 10% 중 일부를 지원하는 곳도 있어, 농업인들의 가입이 필수로 장려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윤호/기자



경북도 응급의료협의체 실무위원회 개최

골든타임 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북도 응급의료의 새로운 전환점 기대!



경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응급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북 응급의료협의체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 응급의료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열악해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의료서비스에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전국 9.8% 대비 경북은

12.3%로 높은 편이다.

특히, 8월 4일(금)과 5일(토)에는 주요(메인)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바다축제 대표 핵심(킬러)콘텐츠 ▲'나이트 풀파티'가,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서부산신규 프로그램인 ▲'원더풀 컬러풀'이 차례로 진행된다.

해운대에서는 '나이트 풀파티(Night Pool Party)'는 8월 4일 저녁 7시~10시까지 인공풀장소활용, 올스탠딩 공연으로 진행된다. 힙합 뮤지션 스윙스, 한요한, 비와이, 애쉬아일랜드, 태바가 출연해 해운대해수욕장을 뜨거워 할 예정이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8월 5일 오후 6시 20분, 아름다운 일몰을 특화한 '원더풀 컬러풀(Wonderful Colorful)'이 진행된다. '원더풀 콘서트'에서는 풀킴, 소란, 제이레빗이 출연해 한여름 밤바다를 낭만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시간 '골드아워'를 주제로 한 다대포 특화 불꽃쇼 '컬러풀 불꽃쇼'가 오

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및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으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응급의료협의체 실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응급실 부적정성 수용곤란 고지사례('응급실 뺑뺑이') 검토를 비롯해 119 구급대 및 병원 간 응급환자이송,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응급의료협의체에서 검토한 회의 결과를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환류하고,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응급의료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북의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도민에게 양질의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31개소, 당직의료기관 4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아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북대 어린이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외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동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해 지원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운영 10주년 및 출동 3천회 기록을 달성한 경북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는 도내 중증외상 응급환자의 이송과 신속한 치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 특별점검 실시

24일, 조재구 남구청장,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응 철저" 거듭 당부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신천대로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급경사지 등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24일 구청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남구청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호우 및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대책기간 내 현장 점검 및 비상근무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4개소, 산사태취약지역 2개소, 급경사지·옹벽·석축 등 12개소,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3개소 등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다.

특히, 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인 24일 조재구 구청장이 관련 부서와 함께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및 급경사지를 직

접 현장 점검했고, 호우 상황 해제 시까지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 온도 저감 및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도시온도 저감을 위하여 도로 살수차량 운행 및 쿨링포그, 분수 등 수경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자율방재단 및 어르신돌봄대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폭염 대비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공원, 관광지 및 재래시장 등에 쿨링포그를 추가 설치하고, 앞산 카페거리 일원 보도에 차열성 포장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재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재까지 집중호우 기간 중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이 재난관리를 실시한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다가를 무더위에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남구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부산의 매력을 담은 바다 팔레트' 다채로운 부산 바다의 매력 발산

올여름 부산으로 올 이유, 「제27회 부산바다축제」 개최

부산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다대포·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부산 대표 여름 종합축제인 '제27회 부산바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동(해운대)·서(다대포) 대표 해수욕장으로 개최 장소를 집중하고 서부산권 대표 신규콘텐츠를 도입, 세대를 아우르는 부산바다축제만의 특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피서객들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주요(메인) 프로그램, 공모사업, 건강관리(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거리공연(버스킹)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부산·여름·바다'를 주제로 공모에서 선정된 참신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연달아 개최된다. 8월 1일 ▲'부산 춤바다', 8월 2일 ▲'해변살사연스 페스티벌'이 다대포의 밤을 뜨겁게 달구줄 춤의 향연이 펼쳐지며, 8월 3일에는 장애인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장애인 한바다축제'와, 전 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즐길 수 있는 ▲'열린바다 열린 음악회'가 열리고, 8월 4일 ▲'다대포 포크락(樂) 페스티벌'에서는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 선율이 함께하는 치유(힐링)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8월 4일(금)과 5일(토)에는 주요(메인)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바다축제 대표 핵심(킬러)콘텐츠 ▲'나이트 풀파티'가,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서부산신규 프로그램인 ▲'원더풀 컬러풀'이 차례로 진행된다.

해운대에서는 '나이트 풀파티(Night Pool Party)'는 8월 4일 저녁 7시~10시까지 인공풀장소활용, 올스탠딩 공연으로 진행된다. 힙합 뮤지션 스윙스, 한요한, 비와이, 애쉬아일랜드, 태바가 출연해 해운대해수욕장을 뜨거워 할 예정이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8월 5일 오후 6시 20분, 아름다운 일몰을 특화한 '원더풀 컬러풀(Wonderful Colorful)'이 진행된다. '원더풀 콘서트'에서는 풀킴, 소란, 제이레빗이 출연해 한여름 밤바다를 낭만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시간 '골드아워'를 주제로 한 다대포 특화 불꽃쇼 '컬러풀 불꽃쇼'가 오

후 8시 10분, 약 20분간 연출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내 조성된 이국적인 분위기의 '비치펍과 푸드라운지'에서 맥주, 칵테일 등 다양한 주류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바다 내음 물씬 나는 거리공연(버스킹)과 건강관리(웰니스)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천혜의 자연에서 즐기는 치유(힐링) 프로그램 '선셋 서핑', '비치 요가', '해변 정화(비치코밍)' 등을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올해 부산바다축제는 동·서부산의 매력적인 여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갈 예정이오니, 많이들 오셔서 오감을 즐거운 축제를 느껴보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서부산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모든 관람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부사항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공식 누리집(www.bfo.or.kr)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진/기자



영양군 선바위 관광지 야외물놀이장 운영

영양군에서는 오늘 26일(수)부터 8월 13일(일)까지 입암면 선바위 관광지에서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고 영양군이 후원하는 '2023년 선바위 관광지 물놀이장'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간 중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하고 활력소를 제공하고 자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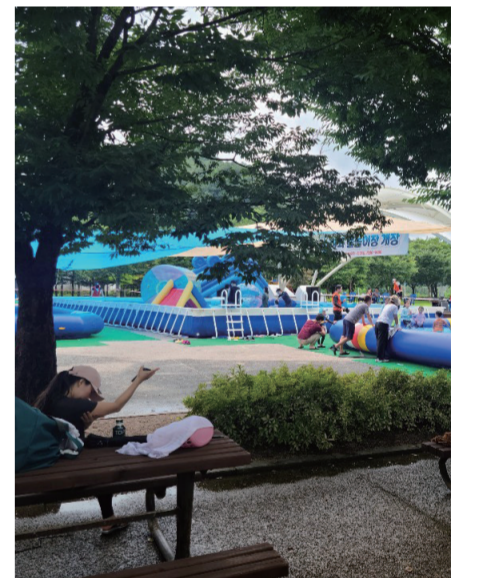
선바위 물놀이장에는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체험형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방서와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과 소방호스로 물 뿌리기 등 체험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영양군 체육회에서는 10여 명의 안전요원과 의료진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의 대표관광지인 선바위관광지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경험을 하기를 바라며, 아이들과 부모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자연과 어우러지는 힐링 여정,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여름휴가 나기

윤경희 청송군수, "자연과 깨끗한 물, 여름이 주는 풍성한 기운으로 힐링 할 수 있는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마음의 쉼표 그려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올 여름은 엘니뇨 현상으로 일찍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엔데믹 시대를 맞아 관광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한 관광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언택트 생활문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관광 형태에 다양한 요소들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로는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던 관광지보다는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여정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런 가운데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최고의 여름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는 청송군에는 '행복하게 여행을 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는 명언처럼 '불거리', '먹거리', '즐거움'을 테마로 무더운 여름을 모두의 건강을 위해 쉬어갈 수 있는 관광 명소가 즐비하다.

▲ 달기·신촌 약수탕
달기약수탕은 청송을 부국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유래는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 조선 후기 때 금부도사를 지낸 권성하가 벼슬에서 내려와 낙향하여 이곳 부국리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

과 수로 공사를 하던 중 바위틈에서 솟아오르는 약수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물을 먹어보았더니 트림이 나오고 속이 편안해져서 그 후 즐겨 마시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곳 달기약수탕은 아무리 가물어도 솟아나는 양에 변함이 없고 염동설한에도 얼지 않으며 색과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동청송 IC 인근인 신촌약수터는 조선조 말 조정에 전국 각지의 약수를 취검한 일이 있는데, 당시 이곳 약수물이 가장 무겁고 맛이 독특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이들 두 곳 약수터에서 나는 약수에는 철분이 많아 약수터 주변이 빨갛게 산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탄산수는 특이하게 단맛이 있어 마시면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약수로 밥을 지으면 밥이 푸른색 윤기를 띠며 찰기가 있어서 지친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데 그만이다.

▲ 약수담백숙
약수탕에서 시원한 달기약수 한 모금

을 마셨다면, 주위의 먹거리를 둘러보는 것 또한 여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다. 달기·신촌 약수탕 근처에는 이곳 약수를 사용해 우려낸 약수담백숙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에 꼽힌다.

약수 담백숙은 철분 함량이 많은 약수가 닭의 지방을 제거해 주어 맛이 담백하고 소화와 잘때, 위장 부담을 덜어준다. 약수에 닭, 인삼, 황기, 감초, 대추, 녹두를 넣어 푹 고아서 닭이 알맞게 익으면 닭은 건져내어 따로 담고, 국물에 쌀을 넣고 죽을 쑤, 닭고기와 함께 먹는다. 이 닭죽은 위장병에 좋고 몸의 기운을 돋우어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 신성계곡 녹색길
신성계곡 녹색길은 관광공사 주관 여름철 관광지로 선정된 걷기 좋은 여행길이다.

갯바들 하천 길, 갈대 밭도랑 길, 방호정 길, 자암 길, 하천 과수원 길, 백석탄 길로 이어진 12km의 녹색길은 맑은 물과 푸른 숲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녹색길을 아우르는 신성계곡은 절경과 맑은 물, 그리고 뽕뽕한 소나무 숲을 자랑하며, 방호정에서 고와리 백석탄에 이르는 계곡 전체가 청송 8경의 1경으로 지정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신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방호정 감입곡류천, 백석탄 포트홀 등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를 4개소를 품고 있는 지구 환경 학습 장소이기도 하다.

신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약 400개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된 곳으로, 공룡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 소공원은 학습장 및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다.

방호정 감입곡류천은 아름다운 하천, 퇴적암 절벽, 도지정 민속문화재 '방호정'이 어우러진 명소이다. 방호정은 조선시대 선비 방호 조준도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생모 안동 권씨의 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세운 정자로서, 신성계곡을 찾게 된다면 둘러봐야 할 명소이다.

마지막으로 안덕면 고와리 계곡에 있는 백석탄 포트홀은 알프스산맥의 미니암봉 같은 바위 군으로, 그 하얀 바위 사이로 흐르는 옥수는 선계가 아닌가 착각하게 한다. 계곡 흐름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마가 되고 침식돼, 암반에 향아리 모양의 깊은 구멍들이 생겨 있으며, 조선 인조 때 경주 사람 송탄 김한룡이 이곳의 시냇물이 맑고 아름다워 고계(금)라 칭한 바 있다.

▲ 청송 얼음골

여름 하면 청송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청송 얼음골이다. 얼음골 계곡 주변은 한여름 외부 온도가 32°C를 넘으면 얼음이 어는 곳으로 유명하다. 청송 얼음골은 골이 깊고 수목이 울창하며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어 산세들의 지저귀 속에서 계곡의 끝을 따라 부는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명소이다.

▲ 캠핑장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수목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기 명소로 판명된 청송에는 캠핑과 삼림욕을 즐길 곳이 많다. 청송자연휴양림, 부남면 청송

오토캠핑장, 상의자동차야영장, 수달캠핑장 등지가 바로 그곳이다. 이들 모두는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찾는 곳으로, 힐링 여행지로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성글 다가는 여름휴가를 맞아 도심에 피해 싱그러운 자연과 깨끗한 물, 여름이 주는 풍성한 기운으로 힐링 할 수 있는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마음의 쉼표 하나를 그려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해병대전우회 휴일 반납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경북·대구·울산 해병대연합회원 100여 명 복구 지원에 힘 모아

해병대전우회 경상북도연합회(회장 송인기) 지난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봉화군 춘양면 일대 수해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 회원 60명, 대구시연합회 30명, 울산시연합회 10명 등 100여명이 휴일을 반납한 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농경지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신진철 해병대전우회 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수해현장을 방문해 조

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수해피해 지역이 빠른 시일 내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전우회 경상북도연합회는 1997년 창립해 현재 22개 시군지회와 13,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진 산불진화,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 등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복구 활동에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윤근수/기자



2신속대응사단, 수해 현장에서 피어난 선행 '귀감'

황금독수리여단, 경북지역(영주·봉화)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구슬땀 선행... '감동'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장병이 있어 든든한 버팀목 돼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훈훈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호우피해 복구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20일(목), 황금독수리여단 조재홍 하사는 경북 영주시 단곡2리에서 주택 복구작업을 실시하던 중, 마을 주민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힌 모습을 목격했다. 무덤덤한 날씨,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

최초 목격자인 조재홍 하사의 응급상황 요청에 따라 현장에 있던 중대 전우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긴박한 상황에서 조재홍 하사는 부대에서 배운 응급 절차대로 할아버지를 업고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킨 후 출혈 부위를 압박·지혈과 동시에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다.

자칫 생명이 위협한 상황에서 조재홍 하사의 빠른 상황판단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할아버지는 119구급대원에 인계 후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조재홍 하사는 "저뿐만 아니라 중대 전우들이 함께 한 일"이라며, "하루빨리 주민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에 복귀한 할아버지는 "폭염 속 수해복구로 많이 힘들텐데, 군장병들이 고맙다"라며, "장병들의 구조 덕분에 빠르게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장병들의 미담은 계속되었다. 호우피해 복구작전 간 토사에 매몰된 수재민의 현금 및 귀중품을 발견해 찾아줘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박정환 소위, 박태주 상병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 19일(수) 경북 봉화군 일대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업 중 현금과 다수의 귀중품이 토사에 매몰되어 있다는 복구작업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일부를 찾아주었다. 일부 현금과 귀중품을 되찾은 주인 엄모씨는 "이번 폭우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현금과 귀중품을 잃고 상심이 컸는데 장병들이 찾아준 덕분에 너무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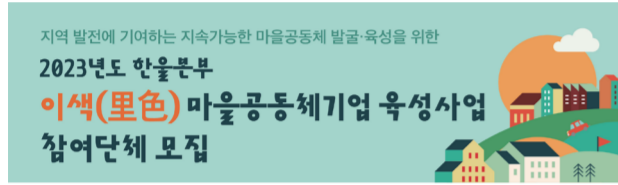
한편, 사단은 '육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로 편성되어 지난 16일(일)부터 경북지역(영주시·봉화군)과 충남지역(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지역(익산시)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총 500여명의 장병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에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게 되는 등,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장병이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2023년 한울본부 이색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 공모



마을공동체기업 발굴을 위해 약 2억 5천만 원 지원

이세용 본부장, "앞으로도 이색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울진군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히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을 위한 2023년도 한울본부 이색(里色)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 참여단체 모집

마을공동체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기업

모집기간
2023년 7월 31일(수) ~ 8월 18일(금)

신청대상
*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읍·면) 주민으로 구성된 울진군 소재 마을공동체 및 단체 (마을회, 직육반, 기타단체, 법인 등)

신청 규모 및 지원내용
* 예비 마을공동체기업 10개 내외 : 단계별 활동비 및 역량강화(교육·컨설팅) 지원
* 마을공동체기업 5개 내외 : 사업비 2,500만원 ~ 3,000만원 지원

신청절차
* 2023년 8월 18일(금) 18:00까지
* 사업신청서 작성 후 메일(cb@sebiz.or.kr) 또는 팩스(053-261-6003) 제출
*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www.sebiz.or.kr

문의처: 010-9655-0765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2023년 한울본부 이색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 신청자를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색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기업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한울본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그동안 한울본부가 지원한 마을공동체기업 22개 중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2곳, 경상북도 예비마을기업에 7곳이 지정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3천만 원 증

액한 약 2억 5천만 원을 마을공동체기업 발굴에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8월 2일부터 사업 설명회와 권역별 기초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2인 이상 권역별 기초교육을 수료한 단체는 예비마을공동체기업 선정에 가점 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https://www.sebiz.or.kr), 한울원자력본부 홈페이지(https://www.khnp.co.kr/hanul/index.do)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s://www.uljin.go.kr/Index.ulj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세용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앞

로도 이색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울진군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응원하겠다"라며, "이색마을 사업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경주시, 홍수대응 점검, "덕동댐 수위 조절 이상 없다"

집중호우로 덕동댐 저수율 증가 시, 방류 기준에 따라 적극 대응 나서기로 주낙영 경주시장 "댐 하루 피해 없도록 방류 시 신속한 통보와 탄력적인 방류량 조절 필요" 강조

경주시가 집중호우로 덕동댐 저수율 증가 시 운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안전하고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 덕동댐 저수량은 2531만㎥로 설계 저수용량 3270만 2000㎥ 대비 77.4% 수준으로 집계됐다.

덕동댐 저수위는 163.89m로 계획 홍수위 170.2m 기준 6.39m가 남아 있고, 설계높이 172.7m 기준 8.81m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덕동댐 방류 시 저류지 역할을 하게 될 보문호의 저수율은 65% 수준이라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경주시는 홍수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이달 초 수문조작 매뉴얼과 가동 여부를 모두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덕동댐 저수율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 방류기

준을 재차 점검했다.

덕동댐의 방류시설은 '여수로' 2곳과 '방류수문' 4곳 등 총 6곳이다. 이 중 여수로 2곳은 저수율이 만수위를 넘어 서면 자연월류 되도록 설계됐고, 방류수문 4곳은 안전을 위해 방류 기준에 따라 개방하고 있다.

방류 기준을 살펴보면 ▲저수율 85% 미만인 상황에서 예상강우량이 100mm 이상일 경우 ▲저수율 85~90% 이상인 상황에서 예상강우량이 80mm 이상일 경우로 나눠 선행 강우와 태풍강도, 호우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

또 저수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강우량이 80mm 이하이면 저수율 1~5% 범위로 방류하고 ▲예상강우량이 80mm 이상이면 저수율 5~10% 범위로 방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며 "댐 운영도 이러한 패턴을 반영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댐 하루 피해가 없도록 방

류 시 신속한 통보와 탄력적인 방류량 조절이 필요하다"며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에 적합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철저한 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타용/기자



의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의성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 '중점조사대상'세대 조사와 더불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에 접

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국민의 권익증진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청 공무원, 예천군 과수농가 토사 제거 현장지원

안동시청 공무원, 예천 감천면 과수농가 찾아 피해복구 지원에 구슬땀

안동시청 직원들이 지난 25일,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일원 과수원을 찾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에 나섰다.

현재, 진평2리 과수원 일대는 나무 밑둥까지 차오른 토사에 대규모 장비로는 진입과 제거가 불가능해 인력 투입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시청 관광문화국과 한국정신문화재단, 체육회 직원 등 50여 명은 집중호우에 쓸려온 토사를 삽으로 퍼내 한데 모으고 나서 트럭 등으로 실어나르며 과수농가의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과수원 농지가 밭이 폭풍 빠진 정도의 토사에 덮혀버려 너무 안타깝다"라며 "복구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농가 시름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실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빠른 재기 위해 자금지원 신속 대처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으로 경북도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 한도 7천만 원(단, 피해금액 이내)까지 저금리의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은 연간 2%의 이자차액을 2년간 경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해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소재 업체는 보증료도 연 0.1%(일반재해지역 0.5%)로 낮아진다.

경북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

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하면 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현장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동식 현장보증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피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서 발급 등 문의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되며, 참고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은 문경시·예천군은 문경지점(☎ 054-556-7402)영주시·봉화군은 영주지점(☎ 054-631-8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경북경제진흥원에서도 피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3%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북경제진흥원 지펀드(<http://www.gfund.kr>)나 시군으로 접수하면 되고, 상세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지원 상담과 안내가 신속하게 이뤄져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유관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봉화군은 7월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복구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3.7.19.)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율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유실)된 경우 100%

감면, 그 외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를 이용해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교육발전 방안 논의 '한마음·한뜻'

오도창 군수, "영양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김유희 교육장, "두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학생과 주민 모두 행복한 살고 싶은 영양군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해



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오전,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2023년 제1회 영양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영양군 교육행정협의회는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영양군수를 공동의장으로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임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지협협의회장, 학부모회장지협협의회장, 관계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교육지원청과 영양군이 상호 협력을 통해 당면한 교육현안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별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전면 무상지원 ▲학기 중 고등학교 조식 무상급식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2024년 영양미래교육지구 운영 ▲일월초등학교 정문 진입로 확충 및 가로등 설치 ▲폐교재산 효율적 활용방안 협조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로 등) 매입 협조 등 7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영양도서관 이전 신속 현황 등 주요 교육현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며, 김유희 교육장은 "영양 교육발전을 위한 영양군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간다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살고 싶은 영양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생활문화센터 기획전시'우주: 집우(宇)집주(宙)'

시민이 짓는 '우주: 집 우(宇) 집 주(宙)' 8월 31일까지

대구 생활문화센터(대구문화예술진흥원)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3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미술프로젝트를 8월 31일까지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

'생활미술프로젝트'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작품제작부터 전시까지 이어지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우주:집우(宇)집주(宙)'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민과 동호회를 대상으로 함께 전시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8월은 7월 한 달간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를 전시기간으로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우주'는 이번 프로젝트에 협력작가로 참여한 채온과 작가그룹 냅(NAP)이 고안한 주제로 한자의 우(宇)와 주(宙)가 만나 이웃과 이웃이 만나고 서로 상생하며 더 큰 우주로 연대하며 뻗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는 더욱 고립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회는 드물었다. 자발적 고립과 온라인 관계에 몰입하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며 SNS가 익숙한 사람은 통화공포증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현

상과 마주한다. 다시 대면 활동이 가능하나 여전히 예전의 일상과는 많이 다른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 의미로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고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과 이웃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우주' 키워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9일에는 참여자들의 소회를 나누는 '시티스트(citist=citizen+artist) 토크'가 열린다. 대전시실의 벽에 부착된 수십여 개 별들이 주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각자의 표현방법과 전시의 즐거움을 배가시켜보는 자리이다.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우주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간 잊고 지내 온 우리 주변과 일상에 안부를 전하는 프로젝트이다. 온라인에 존재하는 세상이 아닌 '현재', '우리', '이곳'에서 만나는 장을 마련해, 서로의 존재와 마음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8월 31일까지이며 '시티스트 토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29일 오후 3시까지 대구생활문화센터 대전시실에 입장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제6호 홍보대사로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 씨 위촉

지난 25일, 위촉식 열려, 박형준 부산시장의 참석, 위촉패 수여, 감사 인사 전해 향후, 문화예술단체/예술인들 동참 독려 교섭활동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 추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역대 최강의 홍보대사단이 꾸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제6호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영화배우 이정재 씨 ▲가상인간 로지 ▲방탄소년단 ▲성악가 조수미 씨 ▲아기상어에 이은 여섯 번째다.

위촉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전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위촉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경호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하며, 이들은 직접 정명훈 씨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명훈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알려져 있으며, 유니세프 국제대사로 마약퇴치와 청소년 구호 및 교육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08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의 구호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기획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특별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으며 전국적인 유치 지지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정명훈 씨는 앞으로 국내·외 유치지지 결집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교섭활동을 지원하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와 정부는 오는 11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교섭 및 홍보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열린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지를 강력하게 표명, 회원국들의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7월 초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이 다수 참여하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장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협력국에 대한민국 부산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1월 개최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무엇보다 국내외 흥

보가 중요한 상황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 씨가 홍보대사로 힘을 보태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2030세계박람회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계속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지난 6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내용과 형식에서 대한민국이 경쟁국들을 압도했다는 평에 이어, 이런 기세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광주광역시 호우특보 전면해제...인명피해 없어

최대 시우량 56mm에도 큰 피해 없어... 피해접수 33건·대피주민 복구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지역에 내린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이번 호우특보 기간 중 광주지역에는 최대 시우량(1시간당 내린 비) 56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지만, 광주시는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11시 광산구 황룡강 장록교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해제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도 주의로 하향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초기 대응단계를 유지하며 실시간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호우 피해신고와 접수와 피해 현장 신속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등은 대책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에 신속 대응했고, 재난문자 발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상상황 안내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유도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2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광주지역 피해상황은 차량 침수 2건, 토사유출 1건, 건물 붕괴 1건 등 33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복구를 완료했다. 황룡강 장록교 홍수주의보 발령에 따른 인근 신덕마을과 장록마을 등 158명의 주민들은 전일 오후 5시 모두 복귀했다.

광주시는 자치구, 광주경찰청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호우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취약지점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사전배치로 이상징후 선제 대응, 폭우피해 최소화를 이뤘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빗

물받이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와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오랜 장마와 많은 비로 지반 곳곳이 약해져 하천 주

변과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지역 신속 복구와 수인성 감염병 방역 강화 등 시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병수/기자



경남도,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도민회의 개최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심의 촉구

경남도는 24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과 도민이 소통하는 '7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실현하고자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도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도정 전반과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 도민회의에서 분야별 의견을 청취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일본 원전 처리수 방류, 빈번한 의료계 휴진과 파업 문제 등으로 도민 안전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산업계, 재난안전, 자치경찰·소방 및 응급의료 분야에서 총사하는 도민 9명을 초청해 '도민의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가졌다.

센터장은 응급환자의 적기 치료와 재이송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의료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산부인과와 소아과와 같은 특정 소수과의 자원집중 관리로 원활한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응급의료체계가 과거에 머물러 있고 늘어나고 있는 응급의료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료인력 확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조치 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도민회의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7월 도민회의는 유튜브 '경남 TV'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 도민 안전이 도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중 전 경상국립대 교수는 일본 원전 처리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도민을 안심시키고 수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홍보와 과학적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은 물론, 어류양식의 스마트화와 스마트 양식 인종제 도입을 제안했다.

남해군 상주해수욕장 안전관리자인 심성훈 씨는 전문인명 구조요원 양성과 안전요원 배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도민회의를 마친 뒤 박 도지사는 실국본부장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박 도지사는 "고용률과 실업률,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들이 경남경제가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정쟁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우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재현/기자



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 15곳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 산업단지 4곳 대상 운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

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지) 등 총 15곳이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의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처음 시작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이번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에 참가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은 물론 채무협상(조정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지원, 법률 자문, 사후 상담 및 서민 금융 제도 안내를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을 했다.

도는 이번 상담소 운영 기간 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임직원 등 약 8천 300명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물 4천200장 배부, 시장 상인회 안내방

송 등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했다.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별도로 문의한 63명을 대상으로 개별적 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간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도민들의 삶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카카오택셀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접수 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031-8008-5090) 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031-267-9396)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김병상/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향해 날개를 펼친 날” 김진태 강원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첫 출근 이모저모

‘글로벌’ 본부 + ‘미래산업’국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그 자체



김진태 지사는 7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강릉 주문진의 강원도립대학교 내에 사무실이 마련된 제2청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됐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고, 이번

7월 정기인사에 발령 난 국장급 15명 직원에게 인사발령장을 수여했다.

개원 기념사에서 김 지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려면 몇 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었다. 기다림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으로 충분하다. 주어진 여건에서 바로 시작하기 위해 임시

청사로 제2청사의 문을 열게 됐다”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서 ‘글로벌’본부와 ‘미래산업’국이라는 명칭을 가져왔다”며, 도정의 비전을 담은 핵심 기능이 모두 들어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념식수와 헌판제막식을 한 후 앞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제2청사의 글로벌관을 순회하며 꼼꼼히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2청사에 근무하게 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2청사의 운영방향을 담은 ‘제2청사 비전 및 추진전략’을 1호 결재로 진행했다.

오후에는 매주 월요일 본청에서 개최되는 정례기자 간담회를 제2청사 글로벌관 대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가졌다.

제2청사의 개청 소감과 주말 동안 이어진 수해 대책현황을 브리핑했고, 앞

으로는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등 제2청사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자브리핑은 제2청사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김 지사는 제2청사 집무실에서 수소산업 추진계획(미래산업국),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유치계획(관광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계획(관광국), 스마트 빅데이터센터 추진계획(해양수산국) 등을 보고 받았다.

김진태 지사는 “본청도 도청이고, 제2청사도 도청이다. 제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으니 자주 오겠다”라고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본청과 제2청사 양 날개를 활짝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제2청사 근무 첫 날의 소회를 밝혔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우동기 위원장 만나 경찰병원 에타 면제·대도시 사무 특례 등 협조 요청

25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진행

박경귀 아산시장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아산시 현안 과제인 국립경찰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방자치 특례제도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어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되면서 더 많은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는 실질적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체계는 물론 행정 역량도 갖추고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만 확보한다면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춘 미니신도시 조성,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행정 지원 등 신속한 행정·개발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박 시장의 설명을 들은 뒤 “아산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등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가치가 결맞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건의 및 지원 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내포에 국제 규격 테니스장 짓는다

내포신도시 대학용지 내 5만㎡ 부지에 2026년 말 건립 목표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테니스장을 2026년 말까지 건립한다.

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과 도 관계 공무원, 충남개발공사, 충남체육회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할 용역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 경기를 내포신도시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 경기장 건립 타당성을 살피고 구체적인 전략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우선 내포신도시 대학용지 내 5만 541㎡의 부지를 테니스장 건립 예정지로 정하고, 관중석 3000석 이상 센터코트 경기장에는 기자실과 VIP실,

방송운영실, 선수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테니스장이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스포츠 발전 도모, 전문·생활 체육 활용을 통한 도민 스포츠 향유 수요 충족,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테니스장 예정 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여건 조사·분석을 통한 최적의 시설 배치 방안을 찾고,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또 2027년 8월 대회 시기에 맞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총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 개최 경기장 부대·기반시설 배치, 교통·건축·구조·토목·설비 등 부문별 검토를 통한 건축 계획과 향후 시설 운영·활용을 고려한 시설 계획을 마련한다.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환경 분야 위해 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모색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 시설 규모, 배치에 대한 기본방향, 사후 운영관리 방안, 적기 준공 및 명품 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위한 사업 추진 전략 등을 중점 논



최정근/기자

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부지사는 “용역을 통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내포신도시 브랜드 가치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명품 테니스장 건립 방안을 찾은 계기이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보건소, 여성·청년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

대상자 특성에 맞춰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천안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성과 청년, 직장인 등 대상자 특성에 맞춰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소는 노인, 여성, 청년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노인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여성 마음건강 프로그램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산전·후 우울 및 난임 우울 여성을 대상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치료와 우울감 감소 및 심신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예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재활용품 캔 활용한 냅킨 공예(25일) ▲이끼 활용한 모스액자 제작(8월1일) ▲양말콘 활용한 발매트 제작(8월8일) ▲넙골식물 활용한 토퍼리 제작(8월22일) ▲식용성 허브 심기(8월29일) ▲다육꽃다발 제작(9월5일) 등 6회에 걸쳐 운영한다.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마음, 봄봄’은 우울·불안 등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거나 고립된 청년(만 19~35세)을 대상으로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총 10회기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 및 대인관계 개선, 사회로의 복귀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울감을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 알아보기, 스트레스 관리 방법, 나의 강점 찾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읍·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 충청 소방학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맞춤형 정신건강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현숙 남궁구보건소장은 “천안시 지역주민들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받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개장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원주시는 올해 물놀이장 7개소를 개장한 데 이어 이달 29일부터 이동식 물놀이장 2곳을 추가로 운영한다.

추가되는 물놀이장은 중앙근린공원 내 원주문화원 앞 공원(무실동 1914)과 혁신도시 광장공원(반곡동 1878-13)이다.

워터슬라이드와 풍장 등 물놀이시설과 탁발실, 화장실, 그늘막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물놀이장으로, 물놀이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물을 교체해 운영을 할 계획이다.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이는 그동안 혁신도시 권역에 물놀이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물놀이장 이용에

불편함이 컸던 만큼 이번 물놀이장 추가 개장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시 원주시장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더위 극복을 위해 이동식 물놀이장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물놀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절골지구) 대상지역 제철 김치 나눔 행사 개최



태백시는 지난 22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인 삼수동 절골1길 일대에서 (사)재난구조협회 태백시지회와 태백시 휴먼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제철 김치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를 위해 (사)재난구조협회 태백시 지회 회원들과 태백시 관계 공무원, 마을활동가들이 바쁜 와중에도 주말을 이용하여 절골 주민(210명) 140가구에 제철 김치(140박스)를 직접 만들어 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고재창 태백시의회의장 및 시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본 행사가 진행된 절골1길 일원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70%에 달해 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

난 2020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4년간 총 14억 3천2백만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공동 이용시설 구축, 골목길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23년 하반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쉼터 조성사업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막연하게 건물만 짓는 도시재생이 아닌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고 골목길 등 취약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며 특히, 연로하신 주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취약지역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행사를 마치며 소감을 전했다.

유상근/기자



안전한 화천토마토축제 꼼꼼한 안전 대책 수립

유형별 재난과 사고에 대비, 매뉴얼 수립해 대응 계획

2023 화천토마토축제가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화천군은 최근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재난과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주요 유형은 화재, 군중밀집, 응급환자 발생, 식중독, 호우 등으로, 군은 각 유형별 조치 및 후속계획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축제 기간 중 20명으로 구성된 기동팀이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위험구간 보수를 담당한다.

대응에 앞서 예방을 위해서도 축제장 내 가로수 정비를 비롯해 안전펜스, 물놀이장 주변 미끄럼 방지시설, 부스별 소화기, 안전 안내판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관광객과 종사자 대상 보험가입도 이뤄진다.

축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군안전건설과 중대재해대응 T/F팀이 참여하는 안전교육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이달 중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사내119안전센터에 구급차와 심폐소생기, 소방차 등 장비협

조를 요청하고, 화천경찰서와는 도난방지 및 질서유지, 미아예방, 교통관리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폭우에 대비해 관광객들을 위한 천막 등 대피시설이 설치되고, 축제장 종합상황실에는 의료진이 배치되며, 필요시 신속한 후송 시스템도 가동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영장 물갈이가 매 행사 종료 후 실시되며, 방문객이 요청 시 마스크도 제공한다.

군은 축제 하루 전인 2일,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을 통해 축제장 내 화재, 전기, 가스, 도난사고 등 위험요소를 최종 점검한다.

아울러 관광객이 쾌적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과 일방통행도로, 차량진입금지 입간판을 설치하며, 축제장 내 먹거리 판매부스에 대해서는 상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무더운 여름밤을 식혀줄 감동의 하모니... 영등포구립시니어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한국 합창곡, 가요 등 총 3부작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즐거움 선사

영등포구 대표 구립 예술 단체, 영등포구립시니어합창단이 7월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정기연주회는 그간 시니어합창단이 갖고있는 실력을 선보이는 공연이다. 한국 합창곡, 가요 등을 중심으로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환상적인 하모니의 문이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구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이렇게 좋은 날에'라는 주제로 총 3부작 공연이 펼쳐진다. 합창단 지휘에 박정수, 피아노 반주에 이만정도 호흡을 맞춘다.

▲1부(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는 시니어합창단의 한국 합창곡과 함께 초청 공연으로 국악인 윤현숙의 경기민요, 해금 연주자 이보연의 연주가 펼쳐진다. ▲2부(우리 강산, 우리 노래)는 시니어합창단의 민요에 이어, 테너 하만택이 특별 출연해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3부(행복으로 가요)는 관객들의 흥을 돋울 '대중가요 메들리'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시니어합창단은 합창을 통해 인생 황금기의 즐거움과 활기를 찾고자 하는 만 55~75세의 여성 구민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4년 정식 창단 이후 여의도 봄꽃축제, 마을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출연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아 왔다. 특히, 어르신 노래 경연대회, 연주 활동 등의 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나눔과 소통도 실천하고 있다.

관람을 원하는 구민은 당일 공연 시작 전에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은 "제2의 인생을 노래와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꽃피우고 있는 시니어합창단이 준비한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다채로운 문화 예술도 경험하시고 가족, 연인 간 행복한 추억도 쌓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항신/기자



2023 안동 문화재야행(월영야행) 운영

월영교 달빛으로 위로받다

안동시가 오는 7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또, 8월 4일(금)부터 8월 6일(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닷새간 한국정신문화재단 주관으로 월영교 일원에서 2023 안동 문화재야행(월영야행)을 개최한다.

시는 당초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화려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려 했으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제성 요소는 배제하고, 잔잔하고 차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마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힐링을 선사할 계획이다.

월영야행의 테마별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다. 야경(夜景)·야로(夜路)·야사(夜史)·야화(夜畵)·야설(夜設)·야시(夜市)·야식(夜食)·야숙(夜宿) 등 8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월영교의 전통 등간과 행사장 곳곳의 야간조명으로 거리를 가득 채우고 안동염수자원과 전통등을 활용한 전통유등 체험과 문화유산 드론쇼를 통해 안동의 세계 문화유산 이미지 제고 및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행사장 일대의 문화재 스탬프 투어, 역사 퀴즈대회, 문화 토크 콘서트, 문화재 AR프로그램, 고택공포체험, 보이는 라디오 등 각종 체험·전시·문화공연을 통해 안동이 가진 역사와 전통이 깃든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월영교 산책로에 수공예품 및 다양한 특산품이 판매되는 월영장터와 과거의 주말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월영주막을 운영하고, 영락교(인도교)에는 푸드트럭을 통해 이색적인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월영교 행사장 일대 주요 거점마다 대형달과 안동의 문화재를 테마로 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월영야행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월영교 일대의 아름다운 야경과 안동의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안동의 문화유산이 지역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무안군, 바가지 없는 지역축제 캠페인 전개

전남 무안군은 최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다가오는 지역 축제인 무안갯벌낙지축제, YD페스티벌, 현경 고구마 축제, 몽탄 코스모스 축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무안연꽃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근절 및 착한 가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 주변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표준가격제 이행(축제 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 ▲가격·원산지 표시 의

무제 이행 ▲불공정 상행위 근절 ▲착한소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지속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불공정 상행위 근절 제도, 표준가격제 도입,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경북교육청, 4세대 지능형 나이스 활용으로 교원 업무경감지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사용자 매뉴얼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화백관에서 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및 전달 강사 75명을 대상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주요 개편 사항 안내와 사용자 교육을 통해 현장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 내용은 △4세대 나이스 초등돌봄교실 사용자 교육(기준관리, 돌봄교실 관리, 신청, 배정, 운영, 회계, 통계) △4세대 나이스 방과후학교 사용자 교

육(기준 관리, 지원금, 프로그램, 강사/위탁업체, 예비학생 관리, 회계, 통계, 설문) 등이다.

또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 밀착형 지원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개선됐으며, 이번 연수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 확보와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교감 연수 실시

포항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연수

천종복 교육장, "도움 필요한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체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 당부해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128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교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아주대학교 최용 교수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이해 특강과 도 지정 선도학교 업무담당 전진주 복지부장의 추진 계획 및 사례발표, 2023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문강사요원 우원국 교감의 비선도학교 업무 추진 방안 발표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복합

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간 연계하고 지역 내 민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포항교육지원청 천종복 교육장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경북교육청, 내실 있는 2학기 행복교육 운영 준비에 나서

'따뜻한 행복교육' 운영 중등 교원 워크숍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따뜻한 행복교육'의 내실 있는 2학기 운영을 위해 '행복교육 교원학습공동체 및 행복학교 운영 교원(중등) 워크숍'을 실시했다.

'따뜻한 행복교육'은 행복 경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구체적·실천적 행복 수업을 통해 교실 속에서 행복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 심리상담가인 최경규 작가(행복아카데미 대표)는 '내 안의 행복을 깨워라'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행복의 참된 의미와 학교 현장에서 행복교육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행복교육 교원학습공동체와 행복학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사동중

강미숙 수석교사는 운영 사례 공유 및 2학기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206교의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행복교육 교원 학습공동체'를 지난해 40팀에서 100팀으로 늘리고 '따뜻한 행복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급 단위 운영을 학교 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근 교육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한 다양한 사례 공유가 2학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경험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교육청, 현장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전남독서인문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현장의 초등교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목포신흥초등학교에서 교원 18명을 대상으로 '2023 현장맞춤형 독서인문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기본과정'을 운영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된 이번 연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방법과 사례 나눔을 중심으로 기본·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심화과정은 오는 7월 31일~8월 1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계획돼 있다.

이날 연수는 박석주 목포신흥초 교장이 '공부하는 학교와 독서교육'을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독서인문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교사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방법과 실제(노안남초 교사 유새영) △ 대립형 토론의 이론과 실제(목포신흥초 교사 정은결, 해남동초 교사 임주연)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신의초 교사 이채은) △ 학교도서관 수업 사례 공유 및 실습(무안행복초 교사 이솔비)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

문교육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며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2학기 수업에서 풀어내 보고 싶다."고 밝혔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전남독서인문교육이 교실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관심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독서인문교육 연수가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지원

급식 정책 통합적 로드맵, 사립유치원 순회 영양교사 급식 관리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22.6.29)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 정책을 펼친다. 유아가 생애 처음으로 급식을 경험하게 되는 의미와 중요성을 담아 '처음급식'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책임의 정책 기반 조성(정책자문단, TF팀 운영) ▲건

강·안전한 급식문화 조성(관리자, 담당자 연수) ▲미래·지속가능 역량 강화(맞춤형 자료 지원) ▲균형·성장 맞춤형 지원(순회 영양교사 맞춤형 컨설팅) 등 급식 전 과정의 통합적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다.

유아에게 친숙한 '초미(初米)'라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의 자생적 성장과 현장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유아교육과 학

교급식 분야 전문가로 '소규모 사립유치원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26일 소규모 사립유치원 정책자문단과 관리자,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급식법 개정(22.6.29)에 따라 중심교육지원청(성남, 용인, 안양·과천, 부천, 의정부, 고양)에 소규모 사립유치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했다.

순회 영양교사는 ▲소규모 사립유치



원 맞춤형 영양 관리(식단, 레시피) ▲위생관리 ▲급식 운영 컨설팅 지원 ▲놀이 중심의 영양·식생활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유치원 급식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급식으로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지원과 자율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제4회



in 울릉도

울릉 최초의 국가 행사

2023. 8. 8. (화) ~ 8. 11. (금)

* 기념식 장소 : 사동항, 19:00





썸뽀할래? 경주, 썸뽀든지!

경주 바다 추천 여행지

오류고아라 해변



양남주상절리



송대말등대



전촌슬발해변



물빛 사랑길&하서해안공원



전촌용굴(사룡굴·단용굴)



볼거리·즐길 거리 가득한 **경주 청정바다**에서 추억에 남는 **여름휴가**를!!

감포읍 경주 이견대

감포읍 전촌용굴(사룡굴·단용굴)

감포읍 감포해국길

감포읍 오류캠핑장

감포읍 송대말등대

감포읍 전촌항

감포읍 감포공설시장

감포읍 나정고운모래해변

감포읍 전촌슬발해변

감포읍 오류고아라해변

문무대왕면 코라드 청정누리공원

문무대왕면 전통명주 전시관

문무대왕면 골굴사·감은사지

문무대왕면 봉길대왕암해변·문무대왕릉

문무대왕면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양남면 주상절리

양남면 물빛 사랑길 & 하서해안공원

양남면 주상절리 전망대

양남면 관성슬발해변

양남면 읍천항 벽화마을

